

자기소개서

소 속	○○○○○○○	직 위	○ ○	성 명	○ ○ ○
-----	---------	-----	-----	-----	-------

1 성장 환경

저는 ○○○○ ○○에서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잦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른 시기에 예편하셨고, 생계를 위해 부산으로 이사 온 후 건설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주택을 짓고 잠시 거주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다시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2 교직 선택 이유 및 과정

어린 시절 잦은 이사로 동네 친구가 많지 않았기에,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뛰어놀았고, 귀가한 뒤에는 학교 앞에서 무료로 배부되던 학습지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내 ○○경시대회 1등을 하면서 ○○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은 체구와 이름 때문에 또래들의 지속적인 놀림을 받으면서 결국 자신감을 잃었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전환점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격려였습니다. “○○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단 한마디는 저에게 큰 용기와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후 성적은 고등학교 때까지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에게 미치는 선생님의 영향력을 깨닫고, 교직을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입 준비 과정에서 ○○교육과를 희망하였으나, ○○ 외 타 과목의 내신이 다소 부족하여 ○○○○교육과에 지원하여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대학 입학 뒤에도 ○○교육과로의 전과를 고민하며 학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모병장병으로 선발되어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휴가 직전 때 군 작전과장님의 격려를 통해 인정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는다라는 경험을 통하여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전과에 대한 고민을 접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대학에 등교하는 생활을 이어가면서 학업에 매진하였으며, 그 결과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 합격 및 교육청 임용대표 선서를 하였습니다.

3 교직 생활 및 경력

가. 교사로서의 생활(과학탐구활동, 현장체험, 학생생활지도, 위기상황 운영)

초임지인 ○○○○○와 두 번째 ○○○○○○에서는 경시대회 및 과학전람회 지도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피아드 및 각종 경시대회를 보다 심도 있게 지도하고자 대학원을 진학하여 ○○연구와 ○○·분석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

의 ○○ 및 ○○○○올림픽아드 성과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림픽아드 지역예선 탈락으로 낙담하던 제자에게는 3년간 아침 무료 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학생이 고3일 때 국제○○올림픽아드 은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람회 탐구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그래밍을 지도하였으며, ○○ 측정을 위한 관측 활동과 보고서 작성 지도를 한 결과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R&E 프로그램에서는 ○○, ○○, ○○, ○○의 경우 ○○○○ ○○와 ○○○○○○○○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신청이 활발하였으나, ○○○○ ○○은 ○○○○ 교수님만 참여하셔서 학생들의 호응이 낮았습니다. 이에 ○○○교수님들을 섭외하고자 동료와 같이 직접 ○○○로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설득하여 ○○○○ R&E 팀들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서 학생들과 ○○○○을 활동을 통하여 ○○○○○○ 포스터 전시 및 논문 발간의 과정들을 지도하였습니다.

R&E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근무할 때에도 과학전람회, 소재이야기공모전, 과학 탐구토론대회, 빛공해사진공모전, ○○○ 등 다양한 학생 탐구활동을 지도하였으며, 특히 탐구결과는 우수하였으나 수상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는 특히 출원도 지도하면서 성취경험의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학년 기획일 때 학년 전체를 인솔하여 2박3일 대학 탐방을 기획·운영하였으며, 재경동창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권 재학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부기획(2014) 및 학생부장(2015~2016, 2018~2019)을 역임하던 때에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Me too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 처리가 매우 과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가출한 제자들을 직접 찾으러 다녔으며, 여러 번의 문자와 통화를 통하여 설득 후 학생의 귀가를 도왔습니다. 이후 선도위원회 조치보다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졸업을 도왔습니다.

○○○에서는 학생들이 ‘○○○ ○○ ○○○○ ○○’ 라는 교훈 변경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징계 조치를 지시하셨으나, 저는 학생부장으로서는 학생지도는 규정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동창회의 협조와 학생회대의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바탕으로 교훈 변경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2020년 당시 교무부장을 맡아 학사일정 조정 및 학교 전반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5월경 보건교사가 갑자기 59일 병가를 신청하였을 때는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의 인력풀 및 대학 간호학과로 직접 전화를 하면서 대체 보건교사를 어렵게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일 아침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발열검사를 하면서 방역체계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 교감으로서의 생활(학교 교육 관리 및 민원 책임)

저는 교감 발령 이후 교육공동체의 요청으로 3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학생교육의 출발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매일 AM 06:30 전에 출근하여 교내 안전을 점검하고, 등교 맞이 및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인사를 하지 않던 학생들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매년 전 교원과 1:1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건의 및 민원사항들은 부서·교과·부장·다모임을 통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학생 간담회는 학년별로 운영하여 건의사항을 반영하였고, 조치는 결재 후 게시판 및 SNS로 공유하여 소통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진로진학 강화를 위하여 학년부와 진로부의 인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1학기만 휴직하는 교사가 6명이나 발생하여 업무분장 및 담임배정이 어려웠으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임 변경 최소화 원칙을 설득하였고 전 교원들과 1:1 상담 및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12월 초 부장·담임 배정을 완성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히 지시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우선하였으며, 학생들의 건의사항은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성적 및 각종 민원 발생할 경우 교과협의회를 존중하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및 악성민원은 관리자로서 앞장서서 원인규명·사안처리·대응을 주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내 순시 중에는 항상 전등과 에어컨을 소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으며, 외부행사 장소를 무료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학생 활동 지원에 재투자하였습니다.

4 교육철학 및 경영관

모든 학생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며,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교직원이 존중과 신뢰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동반자입니다. 학교장은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책임지고 실천하는 교육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5 지원동기 및 포부

저는 과학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교육관리자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중점학교의 특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바른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갖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부산장안고등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첫째, 미래핵심역량을 겸비하며 부산장안고등학교만의 자긍심 함양 프로젝트를 육성하여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이면서 과학중점 자율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진로진학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처벌과 징계보다 학생들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생활지도 및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하여 인성 중심의 상호 존중 학교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전 교직원과 개별 및 부서 소통 시간을 추진하고, 학생들과도 개별 만남을 추진하여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교직원·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며,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